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5. 30.(목) 11:00,
(지면) 2024. 5. 31.(금) 조간

배포 2024. 5. 30.(목) 06:00

‘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’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열려

-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, 5월 31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개최
-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명, 해양수산 유공자 포상 등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5월 31일(금) 오전 10시 20분부터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‘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’를 주제로 ‘제29회 바다의 날’ 기념식을 개최한다.

‘바다의 날(매년 5월 31일)’은 바다가 가지는 경제적, 환경적 가치와 그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1996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. 올해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해양수산 종사자와 지역주민 등 1,500여 명이 참석하여 29번째 바다의 날을 기념할 예정이다.

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해양수산 분야 발전에 기여한 116명의 종사자에게 훈·포장 및 표창*도 수여할 계획이다. 올해 바다의 날 최고의 영예인 은탄산업훈장의 주인공은 (주)정일스톨트해븐 이승만 대표이사로, 울산항이 동북아 액체화물 물류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.

* 훈장 6점, 포장 7점, 대통령표창 12점, 국무총리표창 14점, 장관표창 77명

강도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“우리의 바다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새 희망을 찾고 해양강국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”이라고 하며, 이를 위해 어촌과 연안의 활성화 등 민생안정과 더불어 해양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, 해양모빌리티 산업으로의 도약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.

이 외에 해군 군악대, 화성시음악협회, 바다동요대회 수상팀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된다.

담당 부서	해양정책관	책임자	과 장	이상길 (044-200-5220)
	해양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신상호 (044-200-5226)



□ 추진 배경

- 바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5월 31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*('96년), 매년 기념행사 및 정부포상(훈장 6점 등 총 39점) 실시

* 장보고 대사의 청해진 설치(음력 4월) 즈음인 5월 31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

□ 행사 개요

- (일시/장소) '24.5.31.(금) 10:20 /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
- (주제) 「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」
- (참석자) 해양수산부장관, 해양수산종사자 등 1,200여명

□ 행사 구성

- (식전행사) 홍보영상, 문화공연 등
- (기념식) 축하 릴레이영상, 환영사, 기념사, 유공자 정부포상 등

시간	소요	내용
11:00~11:07	7분	개식선언, 국민의례
11:07~11:12	5분	바다헌장낭독
11:12~11:15	3분	환영사
11:15~11:18	3분	축사
11:18~11:20	2분	릴레이 축하영상
11:20~11:30	10분	유공자 포상
11:30~11:37	7분	기념사
11:37~11:42	5분	바다동요대회 공연
11:42~11:48	6분	상징퍼포먼스
11:48~11:50	2분	폐식선언 및 장내 정리

- (기타행사) 식후 행사, 부대행사, 연계행사 등
- (바다 주간) 5.24~6.9을 바다 주간으로 지정, 전국민적 행사 개최